

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12월 말까지 제주도 내 사업장 207개소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은 수중레저 이용자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주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수중레저사업장 20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주요 인명사고가 있었던 수중레저기구의 스크류망 설치 여부를 수중 카메라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하강사다리 설치 여부, 수중레저장비 작동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으로 발견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법정기준 미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년도 수중레저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 미보유, 수중레저장비 상태 불량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 이승두 단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중레저 사고예방 및 안전한 수중레저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	책임자	단 장	이승두 (064-720-2620)
		담당자	팀 장	김은식 (064-720-2750)
			주무관	김연주 (064-720-2762)